

교환학생 보고서

이름	한 글	이민영	소속(학부/과)	전자공학부 반도체시스템전공
파견 학기	2022년도 1,2학기		파견 국가	프랑스
파견 대학	트루아공과대학교			

❖ 경험보고서는 이후 파견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소중한 자료가 됩니다. 성실히 작성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교환학생에 관심 갖게 된 계기 및 지원 동기

저는 신청 전까지는 교환학생에 대해 깊게 생각해보지 않았었습니다. 오히려, 가지 않기로 맘을 굳혔었습니다. 취업에 도움이 될 '스펙'이 아닐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교환학생을 많이 가는 시기인 2~3학년은 코로나로 인해 놓쳐버렸고, 이대로 포기하려 했었습니다. 하지만 4학년 때 나온 공지에 마침 신청조건이 모두 충족했고, 가벼운 마음으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학교의 교환학생 경쟁률은 타 학교 대비 매우 낮습니다. 다들 저같이 생각하고 지원을 하지 않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마음을 바꾼 사람으로서 절대 후회하지 않고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처음 출발은, ①지금 아니면 (학교에 소속되어 보호받으며) 안전하게 해외에 살아볼 기회가 없다. ②코로나 시국에 정당하게 해외여행을 하고싶다. 이 두 이유만으로 교환학생을 결심하였습니다. 가벼운 이유로 시작했지만 해외에 1년간 살면서 많은 경험을 하고 배운 것이 있기 때문에 교환학생 프로그램이 정말 유익하다고 생각합니다.

트루아공과대학교를 선택한 이유는 두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개강 및 종강이 한국과 일치해 복학에 무리가 없었고, 두 번째는 교환학생을 전세계적으로 많이 뽑는 학교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어찌됐든 외국인 신분이기 때문에, 파견교 입장에서 교환학생이 많을수록 관련프로그램이 많고 현지 학생들도 외국인 학생에 대한 거부감이 적을 것 이라 생각하여 선택하였습니다. 실제로 프랑스는 모든 대학교가 교환학생을 마쳐야 졸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많이 해외로 보내는만큼 또 많이 해외에서 교환학생이 옵니다. 한국으로도 많이 보내기 때문에, 한국에 다녀오고 한국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아주 많습니다. 파티에 가면 한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좋은 친구들과 쉽게 친해질 수 있었어서 저는 학교를 선택함에 후회는 전혀 없었습니다.

■ 출국 전 준비 사항과 주의 할 점(상대교 서류준비, 비자발급 절차, 항공권 구입, 수강신청 및 기숙사 신청 내용 포함)

먼저, 저는 출국 전 서류준비를 할 때 코로나로 인해 지금와 상황 및 요구서류가 달랐으므로, 후술할 내용은 참고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비행기표 구매

교환학생 합격 후 2주 뒤 비행기표를 가장 먼저 구매하였습니다. 에어프랑스 직항 편도로 759,000원에

구매하였고, 수화물 23kg을 추가하였습니다. 돌아오는 비행기표는 아시아나 직항 편으로 889,000원에 수화물 추가없이 귀국하였습니다. UTT는 파리 샤를 드 골 공항에서 각자의 숙소 앞까지 교환학생 픽업을 해주기 때문에, 총 50kg정도의 수하물을 옮기는 데에는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2. 수강신청 및 서류준비

UTT의 수강신청은 한국의 수강신청과 다릅니다. 시간을 알려주지 않고 먼저 듣고 싶은 과목을 리스트에 써서 보내면, 이후 시간표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강신청 표는 제출 뒤에도 계속 바꿀 수 있으니 (폐강도 많습니다) 한 번에 결정하기보단, 교수님을 보고 수정하시는걸 추천합니다. 프랑스어 강의자료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영어 강의라고 되어 있지만 아예 프랑스어로 수업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수업에 참여해본 뒤, 허용 가능한 정도인지 판단하여 수업을 조절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수강변경은 UTT의 원스톱 같은 사이트에서 시간표를 인쇄한 뒤, 추가 혹은 취소를 직접 그리고 담당 교수의 사인을 받은 뒤, international office에 제출하면 됩니다. 이외 서류는 리스트에 따라 첨부하면 되고, 전 처음 서류제출은 ems를 이용하여 보냈지만, 이후로는 이메일로 제출하였습니다.

3. 비자발급

비자발급을 위해선 모든 것을 빠르게 처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매번 바뀌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때그때 가장 최신의 블로그 포스팅을 참고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제가 실수했던 부분에 대해 말해보자면, 학생비자를 신청하는 사람인데 직업을 무직으로 신청하는 바람에 반려 당할 뻔 했습니다..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신청할 당시는 신청자가 많지 않아 캠퍼스 프랑스 면접 이후 대사관 면접을 잡아도 무방했으나, 촉박하다면 캠퍼스 프랑스 면접 전 미리 대사관 면접도 잡아두시는걸 추천드립니다.

4. 기숙사 신청

저는 기숙사 신청 시 feel francais 사이트를 이용하였습니다. 프랑스 유학생용 사이트이고, 기숙사 중개도 하였습니다. 전 damonte residence에서 한학기를 살고, 두 번째 학기에는 집을 따로 구해 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damonte는 비추천드리고 어렵지만 가능하다면 집을 구하시는것도 추천드립니다. 자세한 이유는 후술하도록 하겠습니다. 집 보험도 필수로 들어야하는데, feel francais 사이트에서는 Luko와 연계되어있습니다. 전 1학기는 adh에서 따로 가입하였고, 두 번째 학기에는 luko를 이용하였는데, 둘의 차이점은 없었습니다. 원하는 옵션으로 가격 비교하시고 결정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저는 집보험을 숙소 계약할때만 사용하고, 이후 연락을 할 일은 전혀 없었습니다.

■ 파견대학 소개(크기, 지리적 위치, 기후, 주변 환경 내용 포함)

트루아는 파리에서 기차로 1시간 30분 떨어진 지역으로, 위험한 파리에 비해선 안전하다고 느껴지는 도시입니다. 도시의 크기는 구미보다 조금 작은 정도입니다. UTT 외에 한 대학교와 대형마트(까르푸), 대형 아울렛 등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한국보다 덜 덥고 덜 추우나, 2022년도는 이상기후로 여름엔 한국보다 조금 더 더울 정도였습니다. 영하의 기온으로는 잘 떨어지지 않습니다. 여행을 다니다 보면 파리에 가야할 일이 많은데, 학생할인으로 평일 15유로, 주말 9유로로 파리행 기차표를 구매할 수 있어 부담은 적었습니다.

위에 제가 파리에 비해선 안전하다고 하였지만, 한국처럼 안전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실제로 저는 트루아에서 지갑을 한 번 잃어버렸고, 다른 교환학생들도 피해를 입은 사람이 종종 있었습니다. 물건 분실 시 시청의 lost & found에 가서 찾아볼 수 있지만, 전 찾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작은 도시더라도 홈리스도 있고 마냥 안전하지는 않기 때문에 파리에서만큼의 경계는 아니더라도 소지품은 주의하시는 것이 좋

습니다.

■ 수업 및 학사 관련 사항(수강과목 포함)

수업을 들을 때 가장 놀랐던 것은 출석을 체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교수에 따라 다르지만, 필수적이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출석점수가 없는 줄 알았지만, 출석을 하지 않을 시 abs학점 (absent. f와 같음)을 받게 됩니다. 또한, 한국처럼 A 30%, B 70% 등등의 기준이 교수의 재량이기 때문에, 평균점수를 넘지 못하면 f를 받기도 합니다. 이러한 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학기별로 개설되는 수업이 달라, 따로 서술하도록 하겠습니다.

1. 1학기

SFA1 : 계절학기에 수강하는 프랑스어 A1 수업입니다. 계절학기에 수강하지만, 학기 중 수강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프랑스어의 가장 기초부터 배우게 되며, 수업을 모두 듣는다면 간단한 인사말과 거리의 간판 정도는 읽을 수 있습니다. 저는 SFA1으로는 문장을 만드는 것은 어려움을 느꼈었습니다. 시험은 매주 금요일마다 치는데, 듣기와 작문 둘 다 평가합니다.

FA1P : 학기 중 개설되는 프랑스어 A1 수업이지만, 진도는 SFA1을 배웠다는 전제 하에 그 뒤부터 배우기 시작합니다. 간단한 시제 정도를 배우며, 수강하면 간단한 문장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NF06A : 1학년 프로그래밍 수업이지만, 기초를 다루지 않습니다. 중간고사까지는 c언어, 중간고사 이후부터 기말고사까지는 파이썬을 하는데, 기초 지식이 없다면 따라가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프로그래밍 강의를 들어본 적이 없으시다면 따라가기 벅찰 수 있습니다.

IF15 : 프로젝트 위주의 수업입니다. 세 명씩 조를 짜, 팀원 중 한 명이 잘하는 스포츠를 주제로 정한 뒤, 하는 방법 등 스포츠에 관한 질의응답으로 알고리즘 따위를 작성하는 수업이었습니다. 비대면으로 이루어졌었고, 수업은 거의 없다시피 하였습니다. 중간고사 이후 주제를 한번 바꿔 동일한 것을 진행합니다. 교수님께서 영어에 능통하신 않으셨지만 난이도가 어렵진 않았습니다.

GE44 : 글로벌 비즈니스에 대한 수업입니다. 교수님이 영국인이셔서 영어에 능통하시고, 굉장히 친절하십니다. 제가 수강할 때는 전체 수강인원의 반 정도가 프랑스인이었고, 다음 학기에는 대부분이 교환학생이었다고 합니다. 경제용어를 쓰다 보니 상당한 영어 실력이 요구되고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높은 점수를 받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다만, 수업을 할 때 유럽인과 아시아인의 태도가 정말 다르다는 걸 느껴 가장 흥미로운 수업이었습니다. 그들의 입장에서 아시아인의 문화는 색다르기 때문에 정말로 한국은 그러는지, 어떤지 설명해달라는 질문을 수업 중에 많이 받기도 하였습니다.

2. 2학기

IF02A : 프로그래밍에 필요한 다이어그램을 그리는 법을 배우는 수업이었습니다. 크리스마스 홀리데이가 끝날 때까지 수업에서 제공되는 의뢰인의 요구에 맞춰 다이어그램을 완성하는 것이 프로젝트입니다. 수업 2시간과 실습 2시간으로 이루어졌으며, 출석 체크는 하지 않습니다.

LFA2 : 프랑스어 A2 수업으로, 프랑스어의 다양한 시제에 대해 배웁니다. 저에겐 난이도가 너무 높아 드럽하게 되었지만, A1을 완벽하게 이수하였다면 충분히 수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LO01 : 토요일에 수업이 있는 과목이었지만, 조교님과 요일을 조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알고리즘을 짜는 수업이며, 중간고사까진 알고리즘을 만들고, 기말고사까지는 c언어를 사용해 만들었던 알고리즘을 바탕으로 코드를 작성합니다. 중간중간 5개정도의 프로젝트를 제출해야하며, 2학기에 들었던 과목 중 저에겐 가장 유익하였습니다.

EV13 : 한국인 교수님의 수업입니다. 환경오염에 관한 내용을 다루며, 중간고사만 존재하고 기말고사 대신 발표 프로젝트로 대체됩니다. 대신 먼저 발표를 했더라도 이후 수업에 출석체크를 하니 꼭 참여해야 합니다. 교수님께서 교환학생들의 사정을 이해해주시고 배려해주셔서 다른 수업에 비해 여유롭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한국과 비슷하게 학점이 산정되는 편입니다.

■ 숙소 및 거주 관련 사항(기숙사비, 생활비 내용 포함)

저는 한달에 100만원씩 환전하여 기숙사비와 생활비를 지불하였습니다. 월세는 1학기 기숙사(damonte) 387유로, 2학기 숙소 380유로였습니다. 100만원이면 월세와 생활비는 감당 가능할 정도였고, 여행경비는 따로 환전하여 사용하였습니다. 물가가 점점 올라 막판에는 100만원으로는 빠듯하기도 하였습니다.

제가 머물렀던 damonte는 신청당시 이용후기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저는 학교와 제일 가깝고, 월세가 저렴한 편이라 신청하였는데, 월세에 전기세가 미포함이라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였습니다. 전기세가 얼마나 하겠나 하는 마음으로 신청했었지만, 저는 첫 달 전기세가 150유로가 나왔었습니다. 유럽의 전기세가 한국보다 훨씬 비싸다는 것도 몰랐고, 보일러가 없으니 라디에이터로 한국 정도의 온기를 맞추려고 했으니, 결국 말도 안되는 가격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 이후 조절을 하더라도 50유로 정도의 전기세가 매달 빠져나갔고, 결과적으로 다른 숙소와 비슷한 월세를 내게 되었습니다. 세탁비도 세탁과 건조를 하면 매주 10유로씩은 빠져나갔기 때문에, 월세 이외의 추가적인 비용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게다가 버스가 일찍 끊기기 때문에, 시티센터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다가 버스가 끊기면 걸어서 1시간 거리를 걷거나 자전거를 타고 돌아가야 했습니다. 여행을 갈 때에도 역까지 버스가 없으면 대안이 없기도 했습니다. 대신 이메일로 연락을 하면 일처리는 아주 빠른 편입니다. 체크아웃 날짜 3개월 전에 서류를 제출해야하기 때문에 잊지말고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나갈 때 청소를 하고 나가야 하는데, 이 기준이 매우 엄격해 청소를 열심히 하였음에도 청소비용 100유로를 정도를 제외하고 나머지 보증금만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도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러한 불편함 때문에 이사를 결정하고, 다른 교환학생 친구들과 함께 셰어아파트먼트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이 절차를 통해 깨달은 점이, 기숙사가 트루아 방 시세에 비해 지나치게 비싸다는 것입니다. 대신 집주인이 영어가 가능해야 하고, 이마저도 외국인 학생을 꺼려 구하기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가능하다면 훨씬 좋은 컨디션의 집을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습니다. 저는 'marche de utt(자세히 이름이 기억나지 않네요..)' 라는 페이스북의 utt학생 장터 커뮤니티페이지에서 양도를 구하였고, 외국인 학생이고 6개월만 사는 것 때문에 몇 번을 거절당한 뒤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인당 보증금 500유로에 월세 380유로로 3명이 살 집을 구하였고, 시티센터에 위치한 집이었습니다. 웬만한 식기가 갖춰있어 damonte에 혼자 살 때 급하게 구매한 식기들을 사용하지 않아도 됐고, 오븐과 인덕션, 세탁기등 가전이 구비되어 있어 돈을 아낄 수 있었습니다. 보통 이렇게 옵션들이 있는 것이 집을 구하는 것을 추천하는 또다른 이유입니다. 다만 저 페이스북 페이지는 utt학생의 초대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 학교에서 미리 utt학생과 친해졌다면, 초대를 받아 먼저 구경한 뒤, 결정하는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 파견대학 국제팀 프로그램/서비스 및 교환학생 활동 소개

교환학생들에게는 버디가 배정되지만, 그 외에도 international office에 상주하는 근로장학생 개념의 학생들이 있습니다. 교환학생 프로그램시 동행하고, 관련 일처리도 담당하기 때문에 친해지기 쉽습니다. 전 오피스 친구들과 친해졌더니, 다른 친구들도 쉽게 친해질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자주 참여하시는걸 추천합니다. 오히려 버디는 버디 학생의 성향에 따라 열심히 활동을 하지않아 얼굴도 보지 못하는 경우도 꽤 있으니, 버디만 기다리지 마시고 수업에서 또 활동에서 친구를 사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피스의 학생들과, 같은 시기의 교환학생들의 성향에 따라 프로그램이 많아지기도 적어지기도 합니다. 1학기때는 단합해서 오피스 주관하에 같이 여행도 가고 술도 자주먹고 했지만, 2학기에는 별다른 친목활동은 없었습니다. 또 2학기부터는 연장한 교환학생은 신입생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상황에서 제외당할 수 있습니다. 저는 2학기에 수강신청이 누락되어 수업을 못들을 뻔 하기도 하였습니다.. 허점이 있는 것 같으니 알아보시고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 학교 부대시설 및 추천 하고 싶은 동아리

일단 먼저 정기적인 축제에 대해 설명해드리고 싶습니다. 1학기에는 gala가 있고, 2학기에는 신입생환영회가 있습니다. 둘 다 학기 중 가장 큰 축제이고, 종강 주에는 종강파티도 엽니다. 티켓을 사고 들어가야 하는 생각보다 규모가 큰 파티입니다. gala는 정말 프롬파티처럼 드레스, 수트를 입는 드레스코드가 있습니다. 파트너를 구하는건 아니지만, 학교자체에서 샴페인, 맥주도 팔고 시큐리티도 있으며 연예인도 섭외하는 일 년 중 가장 큰 파티입니다. 해외 대학교라서 경험할 수 있었던 파티였던 것 같습니다. 티켓은 대략 20유로정도 었습니다. 나머지 축제는 gala의 절반 정도 규모이며, 술을 파는 것은 같지만 드레스코드가 없고, 다같이 춤추며 노는 분위기입니다.

학교에는 아주 많은 동아리가 있고, 그 중 스포츠동아리가 가장 참여하기 쉽습니다. 학교를 비롯한 주위에는 다양한 스포츠를 할 수 있는 체육관 등이 있고, 25유로를 지불하면 무제한으로 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스포츠는 동아리 같은 개념으로 굴러가기 때문에 스포츠활동 시간표를 확인하고 맞춰 장소로 간다면 동아리 학생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저는 필라테스 수업을 들었었는데, 학생들이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전문 선생님이 있었고, 또 학생이 아닌 참가자들이 많았습니다. 정확한 룰은 모르겠지만, 제약이 없으니 많이 참여하시는걸 추천합니다. 클라이밍도 추천합니다. 학교에 아주 좋은 클라이밍장이 있고, 계절학기 당시 담당 교수님께서 직접 오셔 알려주시기도 하였습니다. 한국에선 쉽게 경험할 수 없다고 생각해 열심히 참여했었던 것이 기억납니다.

■ 문화적 차이 및 향후 파견 학생들을 위한 TIP

제가 실수했던 것 위주로 작성해보겠습니다.

제가 프랑스에 살면서 가장 크게 느낀 아시안과 다른 인종이 다른 점은, 미안하다는 말을 자주 한다는 것입니다. 잘못이 아닌데도 (우리 기준) 미안한 일이 생기면, 미안하다는 말을 자주 하기 때문에, 외국인

친구들과 대화할 때도 한국어에서 직역하여 'sorry' 라는 단어를 자주 내뱉었습니다. 초반엔 습관처럼 사용하였는데, 외국인 친구로부터 너가 잘못된 것이 아닌데 왜 미안하다고 하냐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보니 저는 프랑스에 살면서 배우지 않더라도 기본 회화문장을 익힌 데에 반해, 미안하다는 뜻의 프랑스어는 한번도 들어본 적 없어 무엇인지도 몰랐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을 남발하면 가뜰이나 동양인으로서 무시당할 수 있는 위치에서 부채질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UTT에는 우리학교 뿐 아니라 한국의 다른 대학교로부터 많은 교환학생들이 파견을 나갑니다. 제가 있던 두 학기동안엔 코로나 시즌임에도 각각 5명씩이었습니다. 당연히 연고 없는 타지에서 동향 사람들이 반갑고 어울리는 것이 편하겠지만, 전 의도적으로 외국인 친구들을 많이 사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친구들과는 영어로 소통하게 되고, 물론 그들도 네이티브는 아니지만 확실히 회화능력이 향상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8월 한 달 동안 스페인과 프랑스인 친구들과 매일 만나며 영어로 대화했었고, 그 당시에 영어 회화 실력이 최고치로 늘었습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영어로 시작해서 잠들 때까지 영어로 대화한다는 것이 부담이었지만, 정말 한국에선 얻을 수 없는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파티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보통 파티는 the bunker라는 주택? 가정집? 에서 모입니다. 실제로 학생들이 살고 있지만 아지트화 된 곳입니다. 보통 파티의 시작은 밤 8시인데, 그 시간에 맞춰 가시면 안됩니다. 8시 시작이라는 의미는, 그 시간부터 손님들이 오기 위한 준비를 한다는 것입니다. 청소를 시작한다거나 음식 재료준비를 시작하는 것처럼요. 그 시간에 맞춰 가면 뽀짝하게 있어야 할 수 있으니, 적어도 2시간정도는 늦게 가는 것이 좋습니다. 이걸 실제로 프랑스 파티 예절이기 때문입니다.

■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통해 느낀 점, 배운 점

저는 교환학생 프로그램은 연장하여 총 1년간 교환학생 생활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저의 결론은 '6개월은 짧고, 12개월은 길다!'입니다. 저희 과는 4학년 창의설계과목으로 인해 한 학기만 하고 돌아오더라도 졸업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1년 파견이라고 마음을 먹고 출국하였습니다. 두 배의 시간이 있으니, 학교 활동도 열심히 참여하고, 여행도 한 달에 한 번씩 틈틈이 다니고, 수업도 열심히 들어 외국의 교육스타일도 알 수 있었습니다. 특히 2학기때에는 여행보단 공부에 집중해보기도 하였습니다. 만약 제가 6개월만 교환학생을 왔다면, 조급해져서 둘 다 놓치는 불상사가 발생했을 것 같습니다. 6개월을 계획하고 오신다면, 여행을 주로 할지 아니면 현지에서 대학생으로 살아보는걸 우선으로 할지를 명확히 정하고 출국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교환학생 기간동안 가장 행복했던 것은, 여러 나라의 문화의 친구들로부터 많은 문화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친구들과 수다를 떨고 이야기를 하면서, 한국이라는 나라는 세계에서 아주 작고 치열한 나라라는 것을 많이 느꼈으며, 그것을 바탕으로 앞으로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 많이 고민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 경험들이 교환학생을 와서 가장 소중한 기억이고, 한국에선 절대 경험할 수 없는 값어치 있는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 기타(사진, 건의사항, 등)

여행 사진보다 트루아에서 있었던 활동을 위주로 사진 첨부하였습니다. 학교 분위기 탐색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